

2010

4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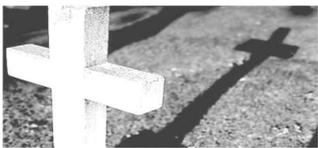
제18권 14호

마데테스

영국 기독교인 14명 용서받은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예수님의 무소유와 법정의 무소유 ②

법정승려는 보이는 사물이 자신을 집착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기고, 그 사물을 자기 수중에 두지 않음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자 했지만, '과연 인간이 수중에 있는 재산을 버린다고 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한다.

불교 용어에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겉으로 보면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이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뱀이 인간에게 접근하여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는 말을 함으로써 인간을 '되고자 하는 자신을 향한 욕망과 집착' 으로 이끌어 간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다. 이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향한 이 집착을 끊임없이 토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 역시 자신을 향한 집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법정 승려의 무소유 또한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일 뿐이다.

법정의 무소유 개념은 소유가 집착을 부르고 집착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나' 라는 자기 주체를 향한 집착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라는 주체가 주장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오직 '나' 라는 주체에 집착을 한 채 자기만을 위한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서 감사와 만족이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사

는 것이다.

'인간이 누구인가?' 에 대한 문제는 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야 죄의 문제와 인간의 현재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하지만 불교는 인간을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분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존재한다' 는 실존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가? 라는 문제가 나올 때, 인간 밖의 환경과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법정 승려처럼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는 답을 내리게 되면서, 결국 해결책으로 '인간을 집착으로 이끌어 가는 소유를 버리자' 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소유를 지향한 법정 승려의 삶 자체를 두고 평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의 무소유 사상에는 냉소를 던지고 싶다. 소유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구조에서는 관념적이고 이상에 지나지 않은 사상이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법정의 무소유 사상이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거북스럽게 하기 때문도 아니다. 냉소를 던지고 싶은 것은 집착은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의 시각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버릴 생각이 없다. 물론 어려운 이를 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집착에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의로 버릴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 설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날 4:13-14

● 예수님의 부활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이란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죽어야 하는 살아남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다시 또 죽어야 하는 살아남이라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고(왕상 17:17-24), 수벳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왕하 4:17-37). 그리고 신약에서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있고(막 5:21-24),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으며(눅 7:11-17),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고(요 11:1-44),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행 9:36-43).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살아남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소생, 또는 회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전제해야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기존의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그 하나하나가 기존 세계와 부딪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굳게 세우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 인간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 세계의 헛됨과 무능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그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활로써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는 교리적 차원의 이론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은 참되지 않고 헛된 것일 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이 참되고 영원함을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죽음의 세계 안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또 다시 생명의 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곧 죽음의 세계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 는 말에서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 는 것이 자기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죄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는 말인가' 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인가 아니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는 내가 관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부처와 같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자는 식의 말만 난무할 뿐입니다.

또한 부활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행사를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평화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평화와 화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죽음이 없고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자는 상태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눅 8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샀지만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슬프고 불행이고 공포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는 것은 편안함이고 안식을 뜻합니다. 죽은 자와 자는 자를 바라보는 인간의 느낌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는 사람은 편안하게 보이지만 죽은 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흑여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 또는 슬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필히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죽

음은 단절이고 심판인데 예수 안의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 생명의 세계

예수님을 신자를 부활시켜 주는 분으로 여기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부활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즉 자기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주는 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에게 집착하여 살아가는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신자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안에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 몸이 죽는다고 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관념으로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집착을 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몸이 죽은 다음에 주어질 혜택으로만 여길 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고,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신자일 뿐 신자의 신자 됨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세계도 위로가 안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서 위로를 얻고 힘이 되는 것을 구할 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모순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한 예가 '시형제 결혼법' 에 의해서 한 여자가 여러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한 여자가 형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형이 죽고 다시 동생과 결혼을 하여 결국 형제 일곱이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나중에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하시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세계보다는 이 땅에서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고 사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또 아직 아무에게도 체험되지 않은 불확실한

부활의 세계보다는 확실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세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에 둘러싸여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믿지 못하겠고, 몸으로 체험되지 않기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불 때는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육신으로 확인하고 감각하겠다는 것부터가 부활의 세계의 능력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과 슬픔과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신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부활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에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드는데, 부활이 뭐고 천국이 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지도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의 고난도, 죽음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위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말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신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며 오히려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 걱정 모두가 육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곧 육신을 벗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신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휴가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잠깐 한다고 해도 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 다시 현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의 세계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주께 붙들려 있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그 힘이 어리석은 우리를 붙들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주일오후 설교



위의 것

골 3:1-4

(15강 3.21일 설교)

기업은 매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으면 그것으로 제품은 실패가 되기 때문에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품이 만들어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발전되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도 마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변형 하여 생산하는 것처럼 믿음을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변형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들이 생산되고 있고, 교회는 교회의 발전에 유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고르고 있는 세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을 기준하여 다른 믿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 대개의 신자들은 ‘신자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땅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 시작되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문제, 신비적인 체험문제, 금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믿음을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금욕적인 것으로 연결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실천을 신앙으로 여기고, 신비적인 체험을 신앙의 증거물로 여기며 체험을 믿는 것. 그리고 금욕적인 실천을 신앙의 경건으로 이해하는 것을 땅의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땅의 것, 즉 인간이 만들어 내는 믿음과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또한 인간이 만들어 낸 믿음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세상을 지향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신앙이 과연 어디를 지향하겠습니까?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당연히 땅을 지향하는 신앙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열심히 실천하고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의해 생산된 신앙은 세상을 향한 인간의 탐심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진 종교적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인간, 즉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탐심에 의한 것인데, 그 탐심의 중심에 있던 것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 의해 태어난 모든 인간도 탐심을 가진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수시로 드러내는 것도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이기에 그 신앙이 지향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율법적인 실천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땅의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는 그 모든 것을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앙에 대해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신앙을 가진 자신을 지향하는 욕망이기에 땅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욕적인 생활도 스스로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 구원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이 또한 자신을 지향하는 욕망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땅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주어진 신앙은 인간을 지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향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땅의 신앙과 위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차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의 신앙도 그리스도를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땅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신앙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헌신 했으니 고통보다는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신앙은 예수님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복을 누릴 가치도 자격도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으로도 감사할 뿐이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헛된 것이고,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며,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신앙은 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향하던 모든 것이 탐욕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니면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임을 보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기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한 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위의 것을 말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교회라고 해도 '위의 것은 없다 땅의 것만 있고 땅의 것이 최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의 것을 말하면서 한가지 덧붙이는 것은, 땅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위의 것, 즉 천국도 들어가고 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것이 있어야 받는다'는 것은 땅의 사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땅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는 '한 것이 없이 받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하고, 내어 놓아야 하고, 바쳐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과 상관없는 것이 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실천이나 신비적인 체험, 금욕적인 경건생활 등, 우리가 신앙의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 모아도 위의 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신앙의 덕목을 보인다면 그것은 뭔가 받기 위한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의 것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증거하는 도구이기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 한분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고 말하는데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주와 함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은 곧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인데,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실천이나 체험이나 경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산 자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가 어떻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실천이 있어야 신앙이다. 말씀의 은사만 가지고는 안된다. 체험의 은사도 있어야 한다’ 는 말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이미 주의 영광에 하늘의 생명에 참여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 관계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관계를 믿기보다는 인간의 실천과 노력으로 예수님과 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유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신자는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의 원칙이 아니라 위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기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마음을 두면 조바심이 나고 낙심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안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매이게 됩니다. 신자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수요일 설교



빛나간 예상 암 5:18-27

(10장 3.17일 설교)

본문은 ‘화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 일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에 어울리는 것은, 비도덕적인 악행을 행했다거나, 제사와 제물 바치는 것을 팽개친 채 세상의 쾌락과 우상에 빠졌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부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로 부르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고 책망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왜 책망을 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어야 당연한데 왜 어둡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 예상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서는 부지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실천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가 외적인 실천을 신앙의 증거물로 제시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 주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의 예상이나 계획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신앙의 문제도 우리 예상대로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실천하고 헌신을 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 엮고 오히려 책망

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고 말합니다.

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꿈을 만납니다. 또는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 물립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여호와의 날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신들의 조상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날로 말하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을 어둠으로 밀어 넣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북스러워하고 배척을 해 버립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을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과연 자신을 악을 구하는 자로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악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실천하고 살아온 삶들이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선이 아니라 악을 구하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했다면 아모스더러 ‘다시는 뵤엘에서 예언하지 말라(암 7:13절)’ 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신은 악을 구하지도 않고, 또 신앙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악을 구한다고 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밀쳐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나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학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악을 구하는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나 제물이 온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착각과 오해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종교적인 행사는 부지런하지만 그것은 어둠에 갇힌 자를 구출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마음을 두지 않은 자의 종교적인 실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신다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난 아니다’ 는 생각으로 끝까지 자기 행함과 실천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는 빛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둠에 있는 것이 됩니다.

21-23절을 읽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그토록 외치는 신앙의 열심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고, 성회를 지켰으며, 번제와 소제를 바쳤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바치고 성가대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열심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넘치는 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몰 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흐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에 흐르고 그 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의 은혜로 죽음에 들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흐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가 흐르고 있는 증거는 약자 앞에서 자신 또한 약자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자를 학대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행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열심과 정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의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선이 아니라 악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답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가 신자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암 계
사도신경	다 암 계
찬 송	9장(통53)
교 독 문	134(부월)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165장(통155)
성경봉독	살전 4:13-14
설교제목	예수 안에 자는 자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80장(통424)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통6)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성의 장로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계
찬 송	261장(통195)
기 도	박영선 집사
찬 송	426장(통215)
성경봉독	골 3:12-17
설교제목	믿음과 신자(17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36장(통493)
주기도문	다암계

다음주기도 : 장동연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모스 강애(14강)

부활의 노래

신윤식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무덤에 누운 그를 일으켰다.

옥합을 든 막달라 여인도
결에 섰던 한 여인도
새벽에 살아난 주님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십자가에 함께 못하고
모히려 예수를 부인한 채
나 살자고 도망치고
혹은 멀찌감치 떨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을 하고
눈앞이 캄캄했던 그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을 걸어 나오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희망은 절망에서도 오고
꽃잎 풀잎은 봄이면 피지만
부활은 죽은 자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리라

교회소식

1.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신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 예배 후에 4월 제직회 모입니다.
3. 은석교회가 속에 있는 동부노회 정기회가 4월 12일(월) 오후 3시에 은석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